

무주군, 온라인 판로 키운다

무주우체국과 반딧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26일 무주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간 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무주군청(군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한완수 무주우체국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통해 △무주군 전자상거래 사업추진에 관한 최우선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상품과 판매자 발굴, △판매자의 우체국 소포물 입점, △홍보·프로모션 등 판매 촉진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체국 소포물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온라인 판로 확대와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이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를 키우고 농가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처 운영과 시장개척을 통한 판로 다양화를 통해 매출액 62억여 원의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26일 무주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간 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10% 이상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으로,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판매, 판로확보 추진, 판매 행사(주말 난장, 자매결연 단체 및 도시소비자 초청 등)는 물론 사이버장터(www.mjl614.com / 우체국 소포물 내 (무주반딧불장터) / 11번가, 마켓, 육선 등 오픈마켓 등) 운영, 유통사업단 운영(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신설 공영주차장 4개소 무료 개방

진안을 소재지 내 주차공간 216면 추가 조성

진안군은 읍 소재지 내 주거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설 공영주차장 4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신설 공영주차장은 지난 2023년 6월에 착공해 1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됐으며 총 21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별 위치는 △고원1 주차장 46면(공용버스터미널 뒤, 군상리 394번지 일원) △고원2 주차장 121면(보건소 맞은편, 군상리 103-2 일원) △고원3 주차장 22면(구. 한일관, 군상리 402-24) △중암3 주차장 27면(구. 통일



교회, 군상리 891-11) 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진안고원시장을 비롯해 읍 소재지를 방문하는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읍 지역에 방치된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현재 2개소(군하리 105-5, 군하리 190-2 일원)에 36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개방해 인근 주거민과 상가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 사업 신청을 받아 주차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공공기관 주변과 주거 및 상업 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과 더불어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 정주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호 유입하천 합동 정화활동 실시

진안군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와 용담호 수질개선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26일 용담호 유입하천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진안천 일원(진안교육지원청~시장교) 약 1Km의 구간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 정화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하천변의 방치 쓰레기를 사전 수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합동 정화활동을 통해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은 하천변 방치

쓰레기를 약 1톤가량 수거하며,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용담호 상수원 수질보전에 밑거름이 됐다.

지난 4월 9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진안군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들은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하천오염행위 집중감시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최북미술관이 26일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사인 ㈜투바엔과 손을 잡았다.

애니메이션 '라바' 무주 온다

무주군, 제작사 투바엔과 업무협약... 특별기획전시회 개최

무주최북미술관이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라바' 제작사인 ㈜투바엔과 손을 잡았다.

무주군은 이를 계기로 문화 콘텐츠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할 방침으로 최북미술관이 1층 공립미술관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26일 최북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투바엔 임기택 사업 이사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 진행을 위한 상호협력과 콘텐츠 협업을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세계적인 애니

메이션 제작사와 최북미술관의 미래를 선계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작가와 무주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 최북미술관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이를 무주다운 두각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협약을 계기로 무주군은 8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라바' 특별기획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개최 기간(8. 31. ~ 9. 8.)에는 '라바'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무주지역 아이들을 위한 '라바 굿즈' 배부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벼 병해충 피해 예방 대책 마련해야"

이종섭 장수군의회 의원, "보상·대책 현실 미치지 못해"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사진)이 지난 25일 열린 제362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벼 병해충 피해 예방과 피해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실시했다.

이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벼 병해충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체 보급종 선정 △지역 증진 △적기 방제를 통해

병해충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방대책은 물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법과 같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농가가 인정하는 피해 금액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난과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오롯이 농가가 감수해야 할 피해로만 여겨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벼 농가뿐 아니라 모든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이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진안군-진안군청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진안군은 지난 25일 진안군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유승조)과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1월 12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1일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부서 검토를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보충 협약 안건은 총 5개 안건으로 4개 안건은 고용노동부의 권장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을 명문화 하는 사항이며, 1개 안건은 '노조원 인사에 있어 직군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무직 직원의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25일 '2024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통합방위위원 및 군경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지역 내 각종 재난 발생과 안보 위협 등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회의 내용으로는 군부대 2분기 추진성과 및 향후 일정 보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된 초동조치 결과와 대처 계획이 보고됐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참전용사 위문 방문을 비롯한 6월 호국의 달 호국원 참배 등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오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화랑훈련 및 여단 전술훈련평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훈식 군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안보태세 확립하고, 지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 및 비상대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며 "유관기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